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8월 18일
제2014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 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6-57)



〈성체성사를 세움〉, 프라 안젤리코

연중 제20주일 (나해)

제 1 독 서 잠언 9,1-6 |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화 답 송 시편 34(33)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 서 에페 5,15-20 |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복 음 요한 6,51-58 |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⁵²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⁵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⁵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⁵⁷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⁵⁸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51)



복음 묵상

오늘 두 독서와 복음 모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각없는 이에게”(잠언 9,4) 자신이 주는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어려운 점은, 지각없는 사람이 과연 그 초대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금보다 귀하다고 거듭 말하지만, 그 지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지혜의 초대는 수고스럽게만 보입니다.

한편 에페소서는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초대합니다. 이 초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 악한 때라고 하면서 어떻게 모든 일에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할까요? 어리석은 자라면 아마도 악한 때의 흐름에 휩쓸려 살거나, 아니면 악한 이 세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세상 안에서도 지금 주어진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 또한 초대입니다. 잠언의 초대에서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받아먹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 때문에 “말다툼”(요한 6,52)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실 때는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이가 모여들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받으라고 하실 때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다만 육신의 양식을 구하려 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구하여 봅시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성화 해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도미니코회 수사인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87-1455)는 수도원 형제들의 기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1440-43년에 그의 제자 베노초 고촐리(Benozzo Gozzoli, 1420-1497)와 함께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에 프레스코를 그렸는데, 이 프레스코는 서양미술사 속 가장 초현실적이면서 신비로운 걸작으로 손꼽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에 각각 성체를 직접 넣어주신다. 제자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성체를 모신다. 이 가운데 여덟 명은 긴 식탁 뒤에 앉아있고, 나머지 네 명은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성체를 모시는 제자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성체를 모실 제자도 예수님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간 구성 때문에 화가는 여덟 명만을 긴 식탁에 배치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를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8이란 숫자는 영원의 숫자로, ‘구원’과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구원을 받은 여덟 명의 노아 가족들이 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모든 유대인은 죄의 사함을 위한 조건으로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하며, 여드레째 되는 날인 주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여드레째 되는 주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영성체는 우리의 덧없는 시간적 개념에 ‘영원’을 담는 것이고, 하느님과 인간이 일치되어 거룩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소중한 순간이다.

성체성사가 제정되는 방 안 공기는 긴장과 흥분이 감돈다. 왼쪽에 성체를 이미 받은 제자들은 지극히 평온한 표정이지만, 아직 성체를 받지 못한 오른쪽 제자들은 초조한 기색이다. 그래서 영성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자들은 빵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 한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네 제자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 얼굴 뒤에 황금색



〈성체성사를 세움〉, 프라 안젤리코

후광이 그려진 것과 달리, 유다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의 색처럼 검은색 후광이 그려졌다.

예수님을 수난의 길로 접어들게 한 유다지만, 그의 눈빛은 성체성사의 신비를 하염없이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예수님은 식탁에 모인 여러 제자에게 같은 잔과 같은 빵을 나누어 모두가

하나이며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신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제자들은 같은 식탁에서 하나의 빵에서 비롯된 성체를 받아 모시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 안젤리코는 성체를 나눠주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요한 6,35)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른쪽 뒤쪽 회랑 중앙에 있는 두레박이 있는 우물도 성체성사와 연결된다. 우물은 사람들의 모든 갈증을 없애준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을 물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성혈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4,14) 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왼쪽에 성모님 역시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아들 예수님이 먹여줄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안젤리코는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교회와 공동체 중심에 등장시켜 예수님의 존재와 성체성사의 은총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찬의 식탁에 초대된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성체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성체성사로 하느님의 생명을 채운다. 성체성사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해야한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1 주임신부 인사 이동

• 원주교구 사제 인사 발령에 따라 새 주임신부님으로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이 부임하시고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은 원주교구 고한 성당으로 가십니다.

배하정 신부님은 8월 26일(월)에 도착하시고, 9월 1일(일) 첫 미사를 봉헌해 주십니다.

김태진 신부님은 8월 25일(일) 미사 중 송별 미사로 봉헌되며, 9월 5일(목)에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두 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30 (A-1,2,3)

3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30 (B-3,4)

4 꾸리아 월례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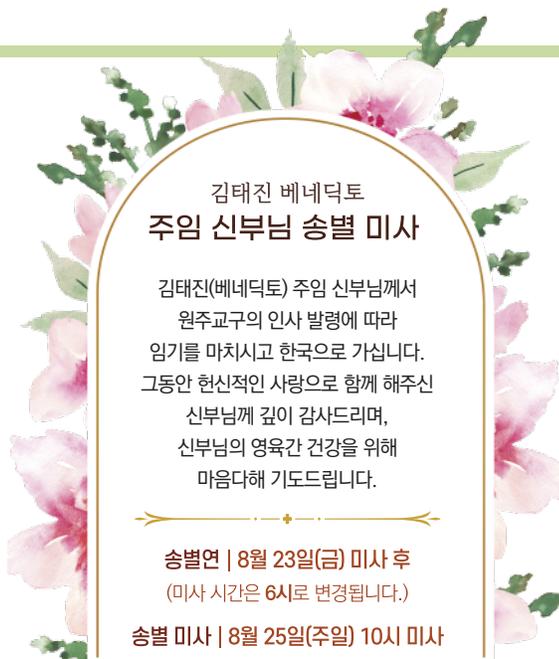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8월 25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 (60대 남녀 교우, A-1)
요한회 (50대 남녀 교우)

6 하상 성인학교 2024년 가을 학기 안내

- 일정 : 9월 10일(화) - 12월 6일(금)
- 등록 : 8월 25일(일), 9월 1일(일), 9월 8일(일)
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등록 안내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후보대에 있음
- 과목 : 생활 영어, 수지 요법, 라인댄스, 수목화, 민화, 합창교실, 색소폰(Saxophone), 장구교실, 기타(Guitar)
-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율리아나 교장 (703) 217-2775



김태진 베네딕토 주임 신부님 송별 미사

김태진(베네딕토) 주임 신부님께서 원주교구의 인사 발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마음다해 기도드립니다.

송별연 | 8월 23일(금) 미사 후
(미사 시간은 6시로 변경됩니다.)

송별 미사 | 8월 25일(주일) 10시 미사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링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② 고해성사,
 -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공지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FIND A MASS near me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바오로딸 콘텐츠>

교중미사 예불봉헌

08/18 이번 주	페어팩스 1구역
08/25 다음 주	페어팩스 2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8월 11일 (연중 제19주일)

봉헌금	\$ 7,927.00
교무금	\$ 3,540.00
교무금(신용카드)	\$ 5,200.00
감사 헌금	\$ 940.00
온라인 봉헌	\$ 4,910.00
합계	\$ 22,51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8월 23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8월 25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교회미술 2천년 : [제 8강]
르네상스 상인과 미술 (1)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면서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 주세요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사 전·후에 성당과 성당 입구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d>화, 금</td> <td>수</td>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